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관한 종단 연구: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 한 나[†]

서울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스트레스와 우울이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중학교 2학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5개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총 2,267명이 포함되었다. 연구문제로는 첫째, 시점변화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 우울, 자살생각 수준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둘째,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세 변인 각각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세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초기시점의 자살생각은 초기 우울수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한편, 시간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자살생각 증가는 초기 스트레스나 우울수준보다는 시간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증가가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심각한 자살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우울 형성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살생각, 스트레스, 우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 교신저자 : 서한나, 서울여자대학교 입학관리처 연구원, (139-74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E-mail : poohho@naver.com

최근 제시된 각국의 자살관련 통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의 자살에 따른 사망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2010). 이러한 세계 전반의 자살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자살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1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2003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우려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자살 관련 소식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1999년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십 만 명 당 기준으로 15.0%이었던 데 비해 오늘날은 무려 31.0%(통계청, 2010)에 이르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고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국민들을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지,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파악하는 데에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하정희, 안성희, 2008).

오늘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살 현상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10~19세 청소년의 자살이 이 시기 사망원인 중 6.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통계청, 2010), 오늘날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자살은 청소년의 발달 시기적 특성에서 기인한다(박광배, 신민섭, 1991; 박아청, 2003).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급변하는 과도기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가 잦은 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경험하는 동시에 사회적 현실에 직면하기 시작하고, 주변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므로(김정은, 2009) 내외적으로 격동을 많이 느끼게 된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의 경우, 사춘기의 경험과 함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이하는 환경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일상생활을 통해 스트레스의 경험이 누적되기 쉬운 발달단계에 속한다(조운주, 2010). 실제로 박아청(2003)에 따르면, 발달과업 상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여 당면한 문제 상황에 대해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충동적으로 자살생각을 하거나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자살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자살 그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살예방에 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에 이르게 되는 자살관련 변인들의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이은희, 조운자, 2008; 정영주, 정영숙, 2007). 이때, 기존 연구(이수영, 1996)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자살 연구는 자살자가 연구대상이 될 수 없고,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는 윤리적, 실제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실행의 한계로 인해 자살 연구는 자살행동에 포함된 일련 과정의 하나인(Ladame & Jeanneret, 1982; Reynolds, 1988) 자살의도나 자살생각을 대상으로 한다(Waldrop et al., 2007). 자살생각은 일반적으로 자살시도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바(Fergusson, Woodward, &

Horwood, 2000),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자살행위나 자살시도에 앞서므로(하정희, 안성희, 2008) 자살을 연구하기 위해 자살생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실제적인 자살시도로의 위험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살충동이나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의 자살시도에 대한 주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자살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다(Beck, Kocacs, & Weissman, 1979; Simons, & Murphy, 1985).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생각이라도 후에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Beck, Kocacs, & Weissman, 1979; Simons & Murphy, 1985), 초기 청소년기에 발생한 자살생각이 시간 경과에 따라 이후 보다 심각한 정도의 자살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Reifman & Wandle, 1995).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살행동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환경적 요인인 스트레스가 자살과 관련한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하정희, 안성희, 2008). 기존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높은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자살과 관련된 행위를 더 많이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장현지, 2004; 최애숙, 2004; 홍영수, 2004; Beautrais, Jouce, Mulder, 1997; Brent et al., 1993; Gould, Fisher, Parides, Flory, & Shaffer, 1996; Mckeown, Garrison, Cuffe, Waller, Jackson, & Addy, 1998).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우울증 집단의 사람

들보다 1.5배, 통제집단 보다는 4배 더 많이 스트레스가 높은 사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Prusoff & Myers, 1975). 청소년 집단에서도 자살위험이 높은 집단의 스트레스 사건 경험 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Wilson et al., 1995)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 연구에 있어 스트레스의 영향을 반드시 살펴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와 함께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우울이다. 우울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며 근심, 침울, 실패감, 상실감, 무기력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를 말한다(Beck, 1974). 여기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상적인 자신과 현실 속 자신 사이의 괴리감으로부터 비롯되며, 자신에 대하여 탐색하고 알아가는 청소년 시기는 그 어떤 발달 시기보다 이 괴리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자주 느끼게 된다(신현균, 2006). 이러한 이유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이 자살위험성을 사정하는데 있어 가장 위험한 요소로 구분된다(정영주, 정영숙, 2007; Beck et al., 1979; Brent et al., 1993; Lee et al., 2005; Lewinsohn et al., 1994; Mosciki, 1997).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우울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Asnow, Carson, & Guthrie, 1987) 청소년 시기의 자살생각 연구에서 우울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 관련 행위를 야기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횡단적 자료에 의존했거나 종단적 자료를 활용했다라도 종단연구를

위한 분석기법이 아닌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홍세희, 2009) 진정한 의미의 종단연구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김효수, 2009). 따라서 종단적 자료와 종단연구 분석기법을 통한 인과관계를 밝힌 것이 아니므로, 위의 연구들을 근거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 관련 행위를 야기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살행동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라 자살행동을 예측하거나 예방책을 제시하는 것은 종단자료와 종단연구 분석 방법을 활용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살연구에서 종단적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살이 시간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이론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Baumeister(1990)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생각도 후에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생각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자살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라고(Beck, Kovacs, & Weissman, 1979; Simons & Murphy, 1985) 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박영신, 권혁호, 김의철, 2003)와 우울(Miech & Shanahan, 2000) 또한 시간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존 국내 자살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못한 것으로 고려된다. 즉,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경향성을 고려하여 이 변인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때만이 실제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기술에 보다 가까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 개념을 반영한 종

단연구를 통해 엄격한 의미에서 자살생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자살생각 및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들인 스트레스와 우울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는 시간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인들의 관계성 분석을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 우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이나(Nolen-Hoeksema, Girgus, Seligman, 199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Allgood-Merten, Lewinshohn, & Hopes, 1990)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차미영, 강승호 2010). 실제로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홍영수 외(2005)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우울 수준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우울이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정하고, 시간 변화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추정하며 동시에 개인차도 고려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기초로 반복 측정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형으로서, 어떤 변인에서의 변화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하고 변화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개인차가 유의미한지도 검증할 수 있다(Meredith & Tisak, 1990).

본 연구는 자살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는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으로 성장함에 따라 경험하는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연구문제 1). 또한 이러한 변인들의 변화양상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을 파악하여 자살생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스트레스의 변화가 우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에 따라 자살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걸쳐 파악하였다(연구문제 2). 이를 통해 자살생각 및 그보다 심각한 자살행위로 고통을 받는 여러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개발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적용에 효과적인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이경상 외, 2005)를 활용하였으며, 2004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를 시작으로 중학교 2학년 때(2008년)까지 수집한 5개년도의 종단 자료를 사용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종단적 연구모형으로 동일표본에 대해 세 번 이상 서로 다른 시점에 반복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초등학교 4학년의 아동들을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에 의해 표집

추출하고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2,844명 중 5 번의 측정시점에서 조사에 한 번 이상 참여하지 않은 577명을 제외한 2,267명을 대상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참여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52.7%(1,194명), 여성이 47.3%(1,073명)이었다.

측정도구

스트레스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개발한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부모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4 문항), 학업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3 문항), 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3 문항), 외모 스트레스(3 문항), 그리고 재정적인 스트레스(3 문항)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 16문항이 스트레스 측정에 활용되었으며, 각 문항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산출결과, 시점별 알파계수는 각각 .902, .917, .915, .899, .899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우울감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포함된 우울 정도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김선아, 2009; 박기원, 2009)에서 우울 측정을 위해 사용한 5개의 문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문항들의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시점별 우울의 신뢰도를 알파계수로 측정된 결과, 1차년도는 .772, 2차년도는 .825, 3차년도는 .826, 4차년도는 .811,

5차년도는 .831로, 적합한 정도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자살생각 측정을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활용된 문항 중에서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자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King et al., 2001; O’Donnell et al., 2004).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음을 의미한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변화양상 파악을 위해 각 시점별 변인의 수준과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각 시점별로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함수 추정을 위해 잠재성장모형을(Latent Growth Modeling; LGM) 분석하였다. 이때 경쟁모형으로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을 아래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각각 설정하였다. 비선형 모형은 측정시점이 네 시점 이상인 경

우에도 적용 가능하지만(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각 변인의 시점별 평균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모형 분석은 제외하였다. 경쟁모형으로 포함된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은 측정시점이 세 시점 이상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시점에 걸친 변화가 일관되게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는 경우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할 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홍세희, 2008). 셋째, 변인별 변화모형 검증은 통해 얻어진 각 변인의 잠재성장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이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경로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간명도를 고려하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활용하였다. TLI와 CFI가 .90 이상이 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홍세희, 2000).

결 과

주요 변인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학생들이 성장함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각 시점의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 수준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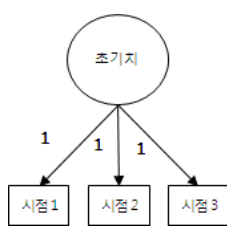


그림 1. 무 변화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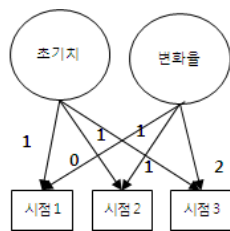


그림 2. 선형 변화 모형

표 1. 주요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1차 시점		2차 시점		3차 시점		4차 시점		5차 시점	
	M	SD	M	SD	M	SD	M	SD	M	SD
스트레스	30.33	11.23	31.77	11.75	34.93	11.82	38.36	11.39	38.57	11.25
우울	11.01	4.28	11.01	4.36	11.47	4.31	11.80	4.17	11.93	4.29
자살생각	1.63	1.07	1.73	1.06	1.81	1.07	1.88	1.08	1.90	1.03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는 아래 변인별 분석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 상관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총 다섯 시점에서 수집된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를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시점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p < .001$)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426**	1													
3	.359**	.461**	1												
4	.295**	.348**	.431**	1											
5	.253**	.290**	.391**	.504**	1										
6	.494**	.285**	.236**	.177**	.171**	1									
7	.281**	.509**	.278**	.191**	.167**	.344**	1								
8	.246**	.312**	.538**	.289**	.250**	.303**	.375**	1							
9	.179**	.234**	.284**	.487**	.300**	.262**	.253**	.394**	1						
10	.151**	.172**	.277**	.318**	.483**	.223**	.212**	.334**	.442**	1					
11	.390**	.229**	.203**	.153**	.100**	.500**	.231**	.241**	.169**	.157**	1				
12	.186**	.437**	.234**	.142**	.138**	.236**	.589**	.271**	.172**	.155**	.274**	1			
13	.188**	.286**	.453**	.226**	.209**	.234**	.284**	.606**	.300**	.252**	.276**	.331**	1		
14	.143**	.193**	.233**	.420**	.239**	.193**	.176**	.268**	.615**	.317**	.187**	.172**	.307**	1	
15	.116**	.159**	.240**	.257**	.418**	.149**	.165**	.244**	.291**	.643**	.124**	.175**	.281**	.367**	1

주. 1: 스트레스1차, 2: 스트레스2차, 3: 스트레스3차, 4: 스트레스4차, 5: 스트레스5차, 6: 우울1차, 7: 우울2차, 8: 우울3차, 9: 우울4차, 10: 우울5차, 11: 자살생각1차, 12: 자살생각2차, 13: 자살생각3차, 14: 자살생각4차, 15: 자살생각5차

* $p < .05$, ** $p < .01$, *** $p < .001$

변인별 분석모형

각 변인의 변화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해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때 시점 간 변인수준이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선형 변화모형이 채택될 것이고,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 변화모형이 채택될 것이다. 각 변인의 변화모형에 대한 적합도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변화가 일관성 있게 나타난 변인의 선형 변화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선형 변화모형이 무 변화모형에 비해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

어 학년 전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표 3). 구체적으로는 표 4에서와 같이 스트레스는 평균의 변화율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2.26, $p < .001$), 시간 경과에 따라 선형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울도 평균의 변화율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26, $p < .001$), 성장에 따라 우울 수준이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살생각의 경우에도 평균의 변화율 값이 정적으로 유의미하여(.07, $p < .001$) 시점들 사이에서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모든 변인에서 변량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각 시점에서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의 수준에 개인차이가 있고,

표 3. 주요 변인의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 적합도

변인	변화모형	$\chi^2(df)$	TLI	CFI	RMSEA
스트레스	무 변화모형	264.229(9)***	.884	.896	.112
	선형 변화모형	155.76(10)***	.941	.941	.080
우울	무 변화모형	188.633(9)***	.887	.899	.094
	선형 변화모형	62.06(10)***	.971	.971	.048
자살생각	무 변화모형	179.543(9)***	.843	.859	.091
	선형 변화모형	51.79(10)***	.965	.965	.043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우울과 자살생각 선형 변화모형에 대한 결과

변인	평균		변량		공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스트레스	30.26***	2.26***	65.82***	4.61***	-8.27***
우울	10.93***	.26***	7.63***	.58***	-.98***
자살생각	1.66***	.07***	.424***	.04***	-7.77***

* $p < .05$, ** $p < .01$, *** $p < .001$

각 변인이 증가하는 경향성도 개인별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년 전이가 됨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수준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모두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학교 2학년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 변인의 수준 증가 정도가 작으며, 반대로 초기에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정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성장하면서 해당 변인 수준 증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인간 분석모형

변인별 분석모형 검증을 통해 얻어진 각 변

인의 선형 변화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이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경로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그림에는 각 측정변인들의 오차변수들이나 내생변인의 잔차들은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반복측정 연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 시점 내에서의 상황적인 오차를 통제하기 위해 가정해야 하는 동일 측정 시점 오차 간 상관(배병훈, 신희천, 2009) 또한 표시하지 않았다. 모형 분석에 따른 적합도 산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TLI와 CFI 모두 .95 이상이고 RMSEA가 .05 이하로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모형을 통해 확인된 변인 간 경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chi^2(df)$	TLI	CFI	RMSEA
187.274(72)***	.987	.991	.02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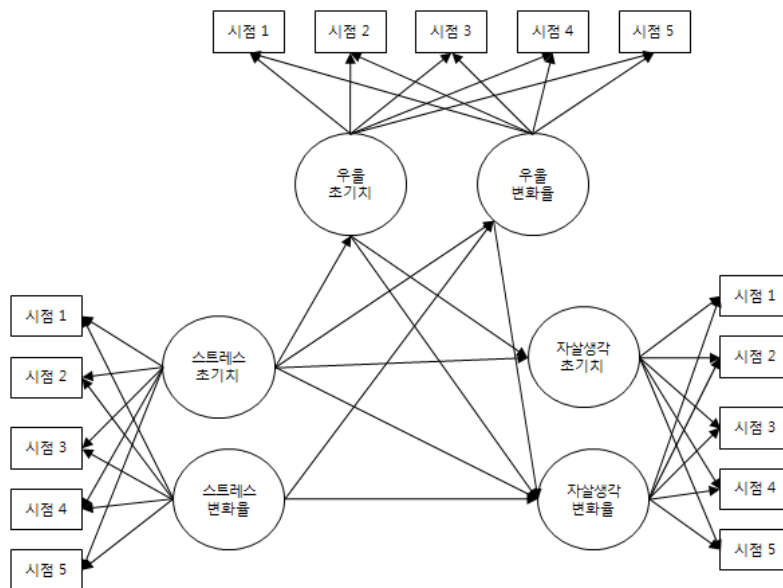


그림 3. 자살생각 다변량 잠재 성장 모형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경로 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스트레스 초기치 → 우울 초기치	.244	.011	.728	22.562***
스트레스 초기치 → 우울 변화율	-.002	.004	-.021	-.487
스트레스 변화율 → 우울 변화율	.233	.014	.690	16.320***
스트레스 초기치 → 자살생각 초기치	.007	.004	.089	1.603
스트레스 초기치 → 자살생각 변화율	.002	.002	.067	1.022
스트레스 변화율 → 자살생각 변화율	.014	.005	.159	2.712**
우울 초기치 → 자살생각 초기치	.162	.014	.684	11.837***
우울 초기치 → 자살생각 변화율	-.003	.005	-.047	-.690
우울 변화율 → 자살생각 변화율	.143	.017	.536	8.679***

* $p < .05$, ** $p < .01$, *** $p < .001$

로계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를 보면, 초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우울 수준이 높고, 초기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자살생각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초기 시점에서는 우울이 스트레스를 완전 매개(*sobel test*=10.26, $p < .001$)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초기 시점에서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스트레스 변화율은 우울 변화율과 자살생각 변화율에 각각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울 변화율은 자살생각 변화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흐름에 따라 자살생각이 변화하는 정도(변화율)는 우울과 스트레스 두 변인 모두의 변화 정도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스트레스 변화 정도가 우울 변화 정도에 영향을 미쳐서 자살생각 변화 정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완전매개(*sobel test*=7.51, $p < .001$)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 증가는 직·간접적으로 자살생각이 증가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 증가는 직접적으로 자살생각 증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각 변인들의 초기 시점의 수준은 다른 변인들의 변화율에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자살생각이 증가되는 데에 초기 스트레스 수준이나 초기 우울 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기존의 자살연구 흐름에서 배제되었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인과관계 측면에서 자살생각에 이르게 하는 경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함께 성장에 따라 보다 심각한 자살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2학년으로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 시간 경과에 따라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의 검증결과 학생들이 성장함에 따라 경험하는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기에 대한 탐색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나는 특성일 수도 있지만(신현균, 2006),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으로 학업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들의 학업부담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중되어(류진열, 2009)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적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는 데 반해, 상담 등을 통한 충분한 개입이 학령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외에도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심한 부적응을 야기시키고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조윤주, 2009), 그리고 우울은 증상 자체의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과 알코올 의존, 물질남용 등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에서(홍영수, 전선영, 2005) 스트레스와 우울 자체가 청소년 부적응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시점별 평균 산출 결과(표 1)를 통해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 수준이 다른 시점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이되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의 기간으로, 기존 연구(유순화, 2008; Mullins & Irvin, 2000; Fenzel, 2000; Simmons & Blyth, 1987)에서와 같이 해당 기간은 청소년들이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학교환경에 접하는 것은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학년 전이 단계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충분히 지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특히 이 시기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 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둘째, 연구 문제 2에 대한 검증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시점에 대한 결과를 보면 기존 연구(이정숙 외, 2007; 정영주, 정영숙, 2007; Beck et al., 1979)와 유사하게 자살생각에 대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울인 것으로 드러났고, 스트레스는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김현순(200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사건과 긍정적인 사건을 모두 포함하는 누구나 경험 가능한 보편적인 사건으로 이

시기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스트레스에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차미영, 강승호, 2010)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보다는 우울에 초점을 두고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변인 간 관계성에 관한 분석 결과, 학생의 자살생각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 증가분을 예측하는 것은 스트레스 증가분과 우울 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우울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의 심각성 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생각이라도 후에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Beck, Kocacs, & Weismann, 1979; Simmons & Murphy, 198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또한 자살생각의 정도가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되는 것은 자살로 이어지는 자살행위의 연속적인 과정(Dubow et al., 1989)이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 증가되는 것 자체에 대한 심각한 고려와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면서 점차 증가되는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시간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증가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초기의 스트레스나 초기의 우울 수준

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살생각 증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는 않았다. 이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스트레스와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으로 나타날 때(표 4), 천장효과가 그 원인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효수, 2009). 예를 들어, 자살생각의 평균의 변화율이 정적으로 나타나서 연구집단이 전반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자살생각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도 자살생각의 변량의 변화율 또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우, 자살생각 증가하는 경향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시점의 자살생각이 높았던 학생과 낮았던 학생이 있다면, 초기 수준이 높았던 학생의 경우 낮았던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자살생각이 증가되는 속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천장효과로 볼 수 있다(좌현숙, 변귀연, 2010). 본 연구결과를 천장효과로 해석한다면 앞서 언급된 초기시점에서 자살생각을 직접적으로 예측했던 우울과의 관계성을 고려해 볼 때 초기 우울이 높아서 결국 초기 높은 수준의 자살생각이 유발되었던 학생은 이후 시점까지 높은 수준의 자살생각이 유지되었을 수 있다. 이는 곧 초기시점 즉,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시기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자살생각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높은 수준의 우울의 형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초기 우울의 형성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해당 변인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입이 있어야 보다 심각한 자살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자살이 점차 저연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까지는 자살연구에서 주요한 초점을 두지 않았던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초기 청소년들의 자살생각과 스트레스 및 우울을 고려할 때 특정 시점에서의 결과만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셋째, 종단적 관점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살생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후 보다 심각한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대해 미연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기존 자살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횡단자료에서 탈피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단설계와 진정한 의미의 종단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그에 따른 추후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자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유형별(오승환, 2009), 성별(강동수, 2003; 엄태완, 강명진, 최정순, 2008)로 자살생각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형에 따라 자살생각 수준이 다르다면, 적절한 예방 및 개입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야 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유형별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척도가 정해져있는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 연구인 관계로 자살생각 및 우울,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변수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척도

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자살생각은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다차원적 문제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뿐 아니라 환경적 개입이 요구될 수 있다(박재연, 정익중, 2010). 그러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의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켜 환경적 맥락에서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 예방의 목적으로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위험변인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한 또 다른 상담적 개입 방안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동수 (2003).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아 (2009). 초등학교시기의 심리사회요인과 중학생시기의 자살생각간의 관계: 스트레스, 우울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3), 5~27.
- 김정은 (2009). 청소년 자살생각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순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1), 203-255.
- 김효수 (2009). 비공식낙인,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매개효과와 검증 중심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진열 (2009). 빈곤층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광배, 신민섭 (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 박기원 (200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2003). 정체감 연구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학지사.
- 박재연, 정익중 (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문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개인 수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2, 69-97.
- 배병훈, 신희천 (2009). 자기결정성과 학업 꾸물거림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747-764.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1-19.
- 신현균 (2006). 청소년의 신체증상 경험에서 부정적 정서의 영향 및 정서표현과 자기개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727-746.
- 오승환 (2009).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학교사회복지, 16, 53-73.
- 유순화 (2008).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연구, 20(1), 355-375.
- 이경상, 김기현, 임희진 (2005).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 119-1197.
- 이은희, 조운자 (2008). 청소년 자살의 심리적 과정 및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의 보호효과. 사회연구 통권 16, 105-143.
- 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최봉실 (2007).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우울, 자살생각 및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6(4), 337-347.
- 장현지 (2004). 일 도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영주, 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와해 및 친구지지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 궤적과 예측요인: 잠재성장모형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조운주 (2010). 청소년초기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잠재성장모형 분석. 인간발달연구, 17(3), 17-35.
- 좌현숙, 변귀연(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내재화 문제의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학교사회복지, 19, 113-140.
- 차미영, 강승호 (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효과. 교육학연구, 48(2), 93-122.
- 최애숙 (2004). 고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 경험이

- 우울, 무망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10). 2009년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 하정희, 안성희 (2008).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트레스, 대처방식, 완벽주의, 우울, 충동성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49-117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구조 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워크샵 교재.
- 홍세희 (2008).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방법론.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교재.
- 홍세희 (2009).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방법론: 홍세희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5. 서울, S&M 리서치그룹.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영수, 전선영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125-149.
- Allgood-Merten, B., Lewinsohn, P. M. & Hopes, H. (1990). Sex differences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55-63.
- Asarnow, J. R., Carson, G. A., & Guthrie, D. (1987). Coping strategies, self-perception,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61-366.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autrais, A. L., Joyce, P. R., & Mulder, R. T. (1997). Risk factors for serious suicide attempts among youths aged 13 through 24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 1543-1551.
- Beck, A. T. (1974).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NY: John wiley and Sons.
- Beck, A. T., Koc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e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Allman, C., Roth, C., Schweers, J., Balach, L., & Baugher, M. (1993). Psychiatric risk factors of adolescent suicide: A case contro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32, 521-529.
- Dubow, E. F., Kausch, D. F., Blum, M. C., Reed, J., & Bush, E. (1989).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iatry*, 18(2), 158-166.
- Fergusson, D. M., Woodward, L. J., & Horwood, L. J. (2000). Risk factors and lif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suicid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Medicine*, 3(1), 23-39.
- Gould, M. S., Fisher, P., Parides, M., Flory, M., & Shaffer, D. (1996). Psychosocial risk factors of child and adolescent completed suici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155-1162.
- King, R. A., Schwab-Stone, M., Flisher, A. J.,

- Greenwald, S., Kramer, R. A., Goodman, S. H., Lahey, B. B., Shaffer, D., & Gould, M. S. (2001). Psychosocial and risk behavior correlates of youth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837-846.
- Ladem, E., & Jeanneret, O. (1982). Suicide in adolescence: Some comments on epidemiology and pre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5*, 355-366.
- Lee, S. Y., Choi, E. Y., & Kim, C. K. (2005). Effectiveness of a reality therapy-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reduction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2), 141-163.
- Les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 (1994).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future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297-305.
- McKeown, R. E., Garrison, C. Z., Cuffe, S. P., Waller, J. L., Jackson, K. L. & Addy, C. L. (1998). Incidence and predictors of suicidal behaviors in a longitudinal sample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621-629.
- Meredith, W., & Tisak, J. (1990).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 107-122.
- Miech, R. A. & Shanahan, M., J. (2000).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on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162-176.
- Mosciki, E. K. (1997). Identification of suicide risk factors using epidemiologic studie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 499-517.
- Mullins, E. R. & Irvin, J. I. (2000). Transition into middle school: What research says. *Middle School Journal, 31*(5), 57-60.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 (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05-422.
- O' Donnell, L., O' Donnell, C. O., Wardlaw, D. M., & Stueve, A. (2004). Risk and resiliency factors influencing suicidality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and Latino you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 37-49.
- OECD (2010). OECD Health Statistics: Suicides. http://www.oecd.org/document/0,3746,en_2649_201185_46462759_1_1_1_1,00.html
- Paykel, E. S., Prusoff, B. A., & Myers, J. K. (1975). Suicide attempts and recent life ev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2*, 327-333.
- Reifman, A. & Wandle, M. (1995).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as a function of depression, hopelessness, alcohol use, and social suppor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3). 329-354.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imons, R. L., & Murphy, P. I. (1985). Sex differences in the cause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423-434.
- Waldrop, A. E., Hanson, R. F., Resnick, H. S., Kilpatrick, D. G., Naugle, A. E., & Saunders, B. E. (2007). Risk factor for suicidal behavior among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Journal of Trauma
Stress*, 20(5), 869-879.

1 차원고접수 : 2011. 3. 30.

수정원고접수 : 2011. 6. 27.

최종게재결정 : 2011. 7. 13.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effect of Stress and Depression

Han-Na Suh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in a longitudinal approach. A total of 2,267 students of the cohort data(from 10 to 14 year old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Youth Panel Study(KYPS) were used.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study, first the growth patter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were analysed by Latent Growth Model(LGM). Second,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as us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of the three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three variables showed a linear growth as time passed. Second,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crease of stress and depression may lead to the increase of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adolescents' growth. Discussions are followed to suggest application of the study result in reference to the adolescents with suicide-related problems.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stress, depression,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